

2009년 3/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2009. 10. 5 제48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 II.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 III. 서울의 3/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 IV. 종합분석 결과 및 시사점

부록: 2009년 3/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최근 서울의 경기는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1월 전년동기대비 -27.1%로 최저점을 통과한 이후 감소세가 큰 폭으로 완화되어 7월 -11.0%로 조정국면에 진입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경신판매액 증가율은 7월 5.2%로 5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내수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시 체감경기 호전

2009년 3/4분기 서울시민과 기업들의 체감경기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3/4분기 101.9로 3분기 연속 상승하여 현재의 경기가 크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향후 경기를 반영하는 「미래경기판단지수」가 121.9로 2/4분기 116.3에 이어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은 1년 후 경기를 현재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1/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개선되어 서울 소재 기업의 2009년 3/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93.7로 1/4분기 60.5에 비하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향후 1분기 이후 기업의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업황전망지수」가 101.2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서울 소재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4/4분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경예산의 효율적 운용 필요

따라서 서울 경제는 지난 1/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이래 완만한 회복국면에 있으며, 3/4분기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확대로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의 빠른 경기회복은 상반기 2조 3천억원에 이어 하반기 6천 639억원 규모에 달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확대재정지출과 예산조기집행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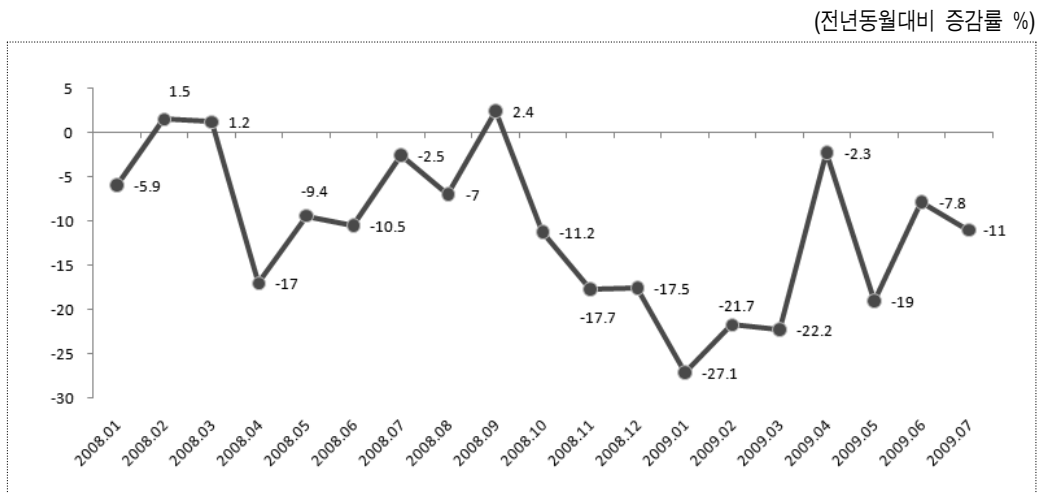
특히, 하반기에 편성된 추경의 64.8%는 안정적인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서울형 복지 강화(1,21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2,349억원), 완공예정사업 마무리 및 조기집행준비(743억원) 등의 사업 부문에 집행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편성된 2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서울의 체감경기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청년실업 해소, 창업절차 간소화 및 자금 확충 등의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향후 서울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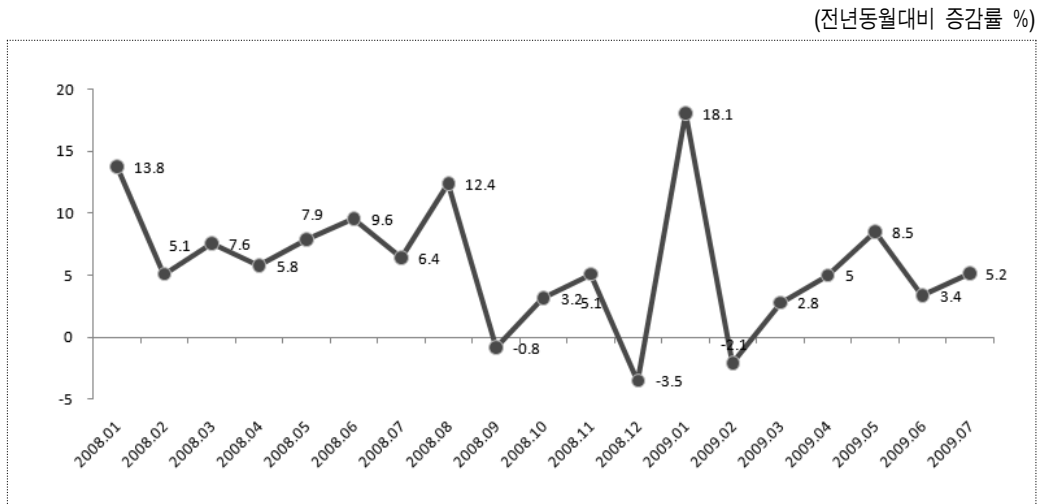
- 서울의 산업생산은 1월 이후 감소세가 큰 폭으로 완화되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금융위기 직전인 작년 9월 2.4%에서 올해 1월 -27.1%까지 22.7%p 급락하였으나 4월 -2.3%로 마이너스 성장세 대폭 개선
 - 빠른 회복국면을 보이던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4월 이후 개선 폭이 둔화되어 7월 현재 -11.0%로 조정국면에 진입
 - 올해 1월을 저점으로 서울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상승국면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전망
 - 올해 1/4분기의 빠른 경기회복세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예산 조기집행 등의 노력으로 생산부문의 경기 급락세가 진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자료 : 통계청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증감률

- 2009년 7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 증가율은 5.2%로 5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2008년 12월 전년동월 대비 -3.5%로 저점을 기록한 뒤 7월 현재 5.2%로 5개월간 연속 플러스 성장세 유지
 - 특히,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의 내수 평균 증가율은 5.8%로 전국의 평균 증가율 4.8%에 비해 1.0%p 높게 증가하고 있어 전국보다 빠르게 내수회복이 진행중
 - 세부 부문별로 전년동월대비 7월 현재 백화점은 7.5%, 대형마트는 2.5% 증가하여 백화점의 판매 호조가 전반적인 내수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
 - 백화점의 경우 음식료품과 화장품 판매 호조로,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사업체수 증가(전년 62개 → 금년 66개)로 회복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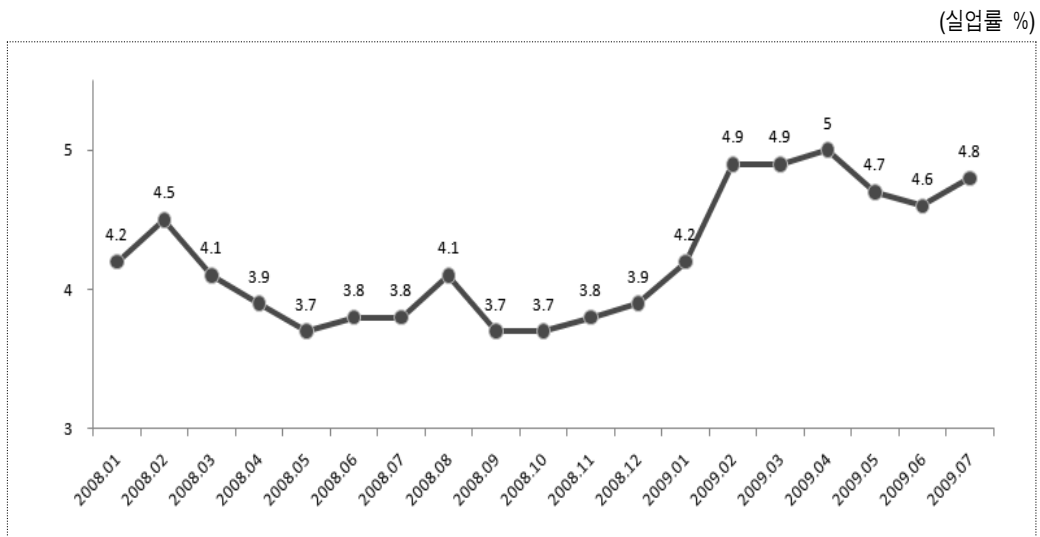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 증감률

서울의 실업률 4%대 후반 유지, 청년 실업률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7월 실업률은 4.8%로 2008년 평균 3.9%보다 상승
 - 최근 서울의 실업률은 4월 5.0%에서 6월 4.6%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와 비교하여 여전히 4.0%대의 높은 수준 유지
 - 4월 이후 실업률 악화 추세가 다소 개선된 원인은 서울시의 공공부문 인턴십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에 기인
 - 서울의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009년 2/4분기 7.8%로 전국의 8.0%보다 낮아 2007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국 대비 낮은 실업률 수준을 기록
 - 이는 단기적으로 청년층의 취업을 위한 공공부문 인턴십 제도의 효과로 판단되어 향후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대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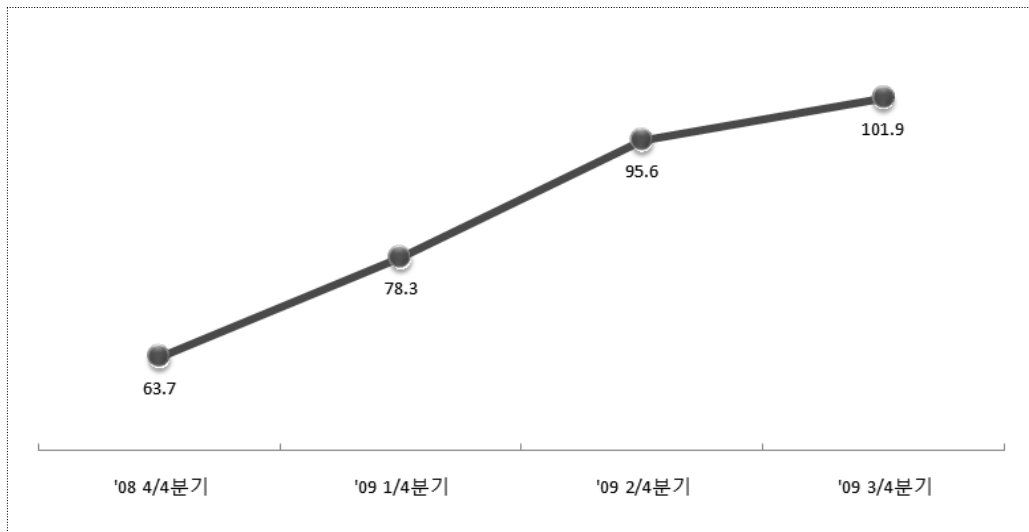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3] 서울의 실업률

II.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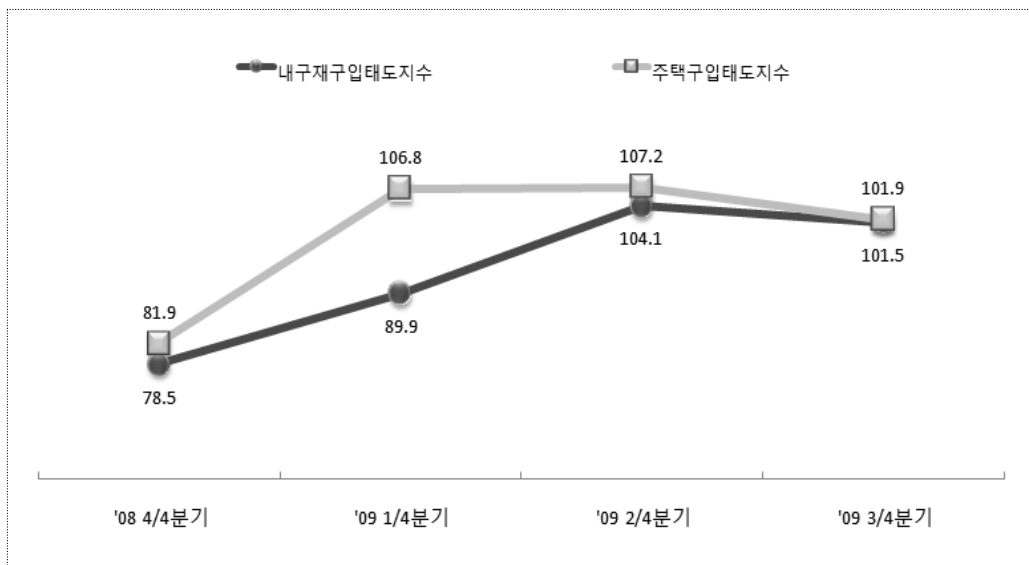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3분기 연속 상승 추세로 경기가 크게 호전

- 2009년 3/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101.9로 현재 경기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08년 4/4분기 63.7에서 3분기 연속 상승하여 2009년 3/4분기 101.9를 기록
 - 따라서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3/4분기에 100을 상회함으로써 현재의 경기가 크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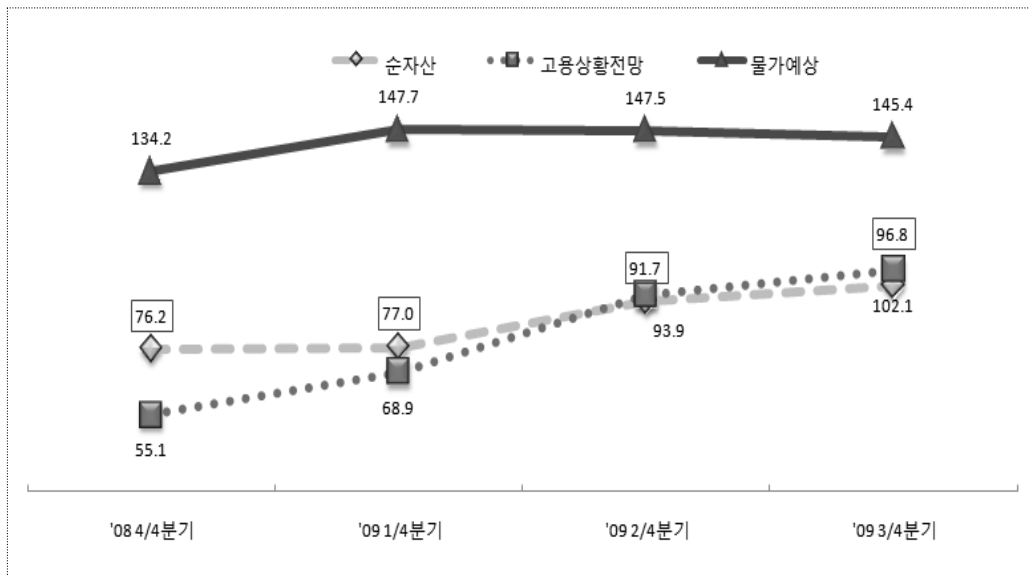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2009년 3/4분기 서울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와 「주택구입태도지수」 모두 기준치(100)에 근접하여 소비심리 안정
 - 2009년 3/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2/4분기보다 3.6p 하락한 101.5로, 내구재구입 심리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 유지
 - 2009년 3/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101.9로 2/4분기보다 5.3p 감소
 -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인상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하면서 주택구입 심리가 1/4분기 이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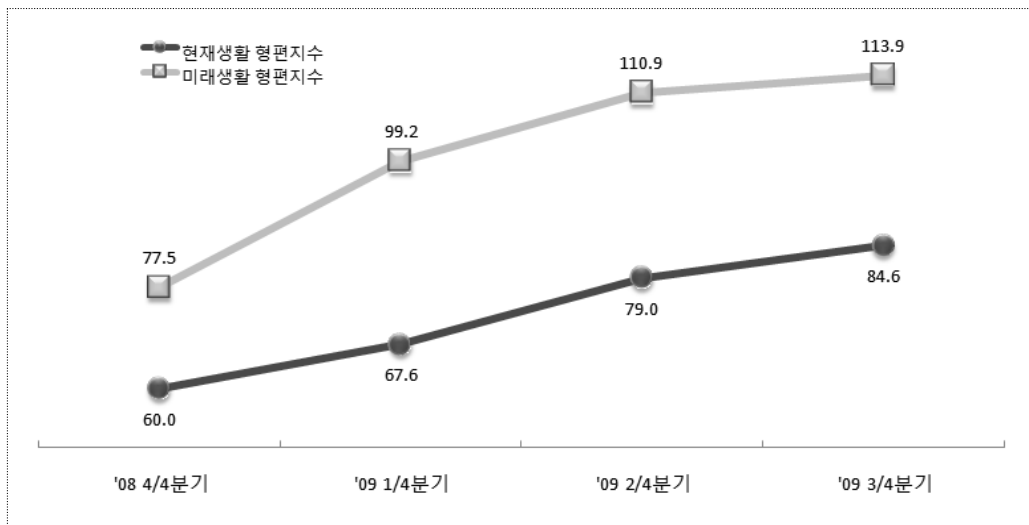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 순자산과 고용상황 관련 지수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물가 관련 지수는 여전히 불안
 - 2009년 3/4분기 「순자산지수」는 2/4분기에 비해 5.1p 상승한 96.8로 기준치(100)에 근접하여 순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3/4분기 102.1로 1/4분기 93.9보다 8.2p 상승
 - 이는 3/4분기에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넘어선 것으로 고용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2/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보다 2.1p 떨어진 145.4를 기록
 - 그러나 생활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2/4분기에 이어 「물가예상지수」가 기준치(100)를 훨씬 상회하여 물가불안 심리가 여전히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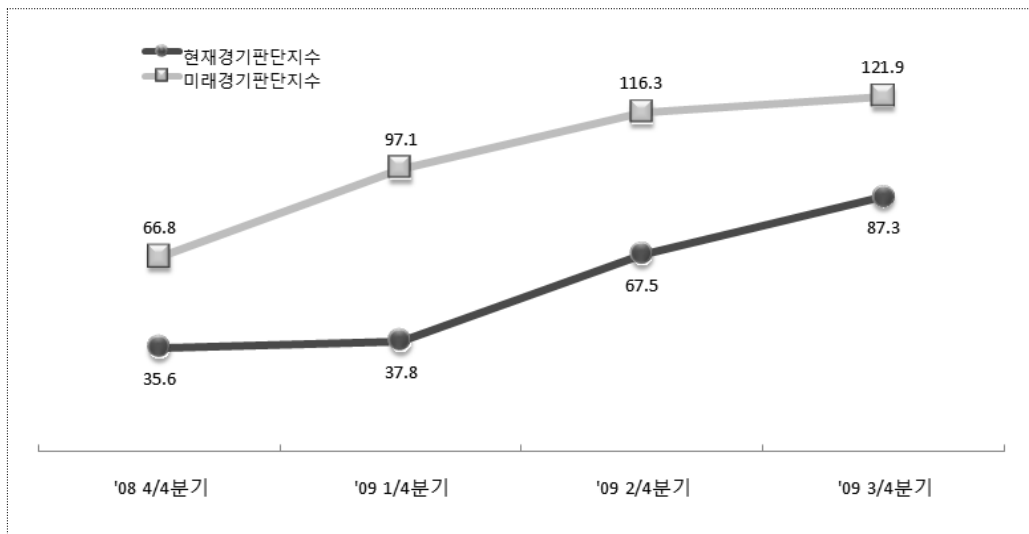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순자산, 고용전망, 물가예상지수

- 서울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113.9로 1년 후 생활 형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지표인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009년 3/4분기 각각 84.6, 113.9를 기록
 - 3/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4분기 대비 5.6p 증가로 2008년 4/4분기 이래로 소비자의 생활형편이 지속적으로 개선
 - 또한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4분기보다 3.0p 증가하여 2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훨씬 상회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1년 후 생활형편이 현재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그림 7]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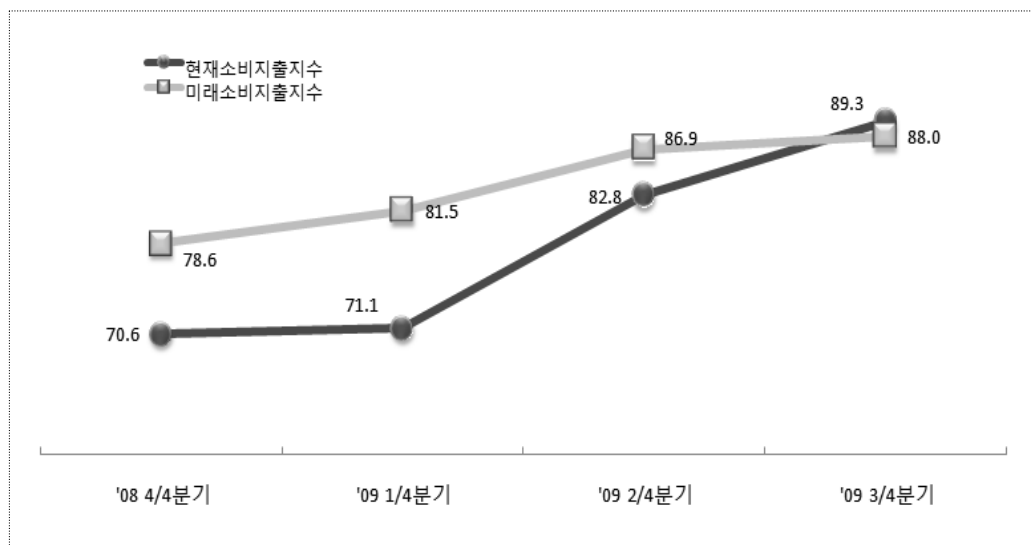
-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도 121.9를 기록하고 있어 1년 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가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음을 시사
 - 2009년 3/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4분기 대비 19.8p 상승하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4/4분기보다 51.7p 상승한 87.3 기록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4분기 대비 5.3p 상승한 121.9로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1년 후 경기를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
 - 현재와 미래의 「경기판단지수」 모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향후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대감 확대



[그림 8]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현재의 소비지출은 2분기 연속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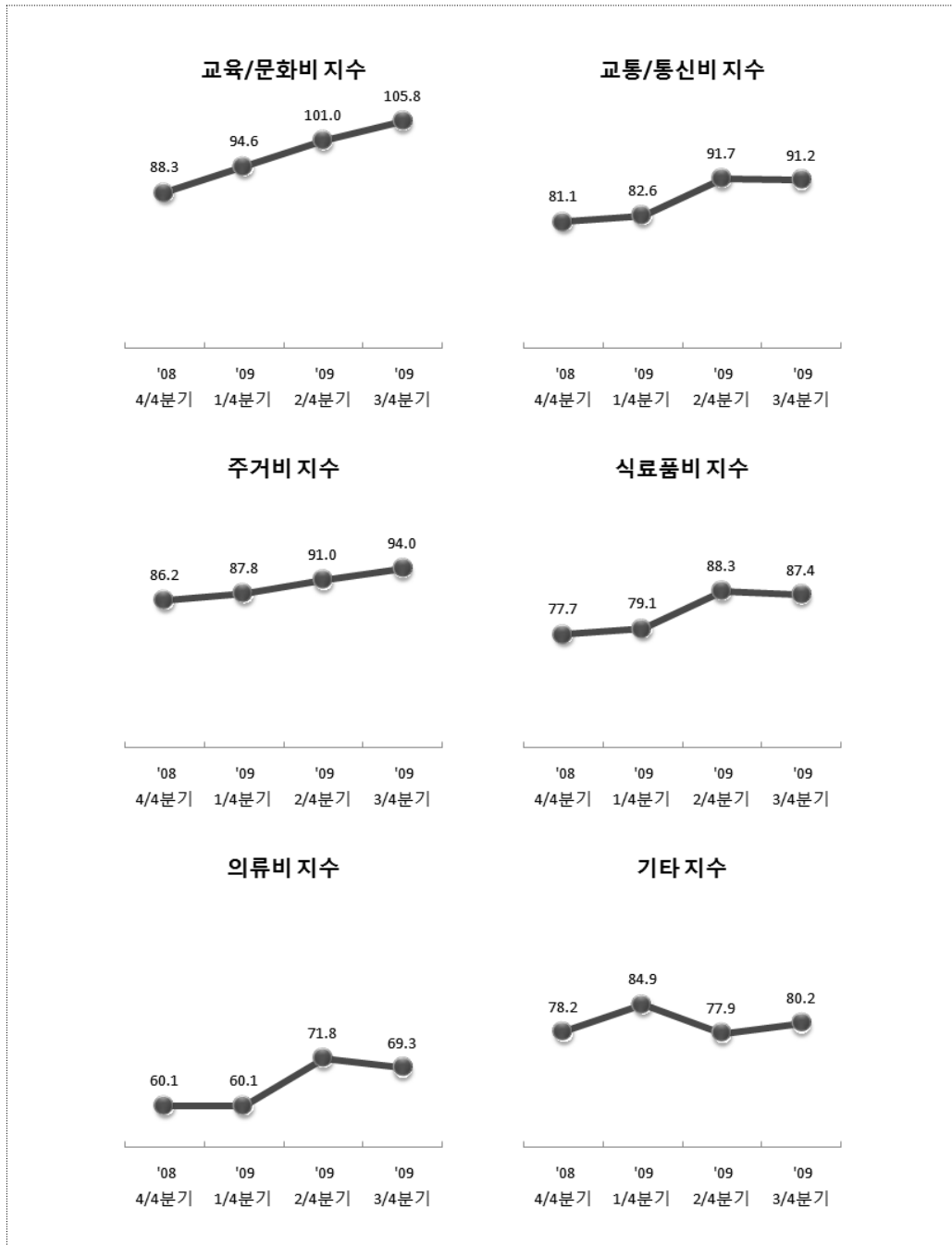
-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8.0으로 1년 후 전반적인 소비지출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 3/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89.3으로 2/4분기보다 6.5p 증가하여 소비지출 심리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에는 미달
- 「미래소비지출지수」도 2/4분기보다 1.4p 증가했으나 계속해서 기준치(100)에 미달하여 향후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지출에 대한 소비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조사 결과 '교육/문화비(105.8)', '주거비'(94.0), '교통/통신비(91.2)' 등의 순으로 지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모든 품목의 소비가 2/4분기보다는 약간 상승하였으나 '교육/문화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기준치 100에 미달,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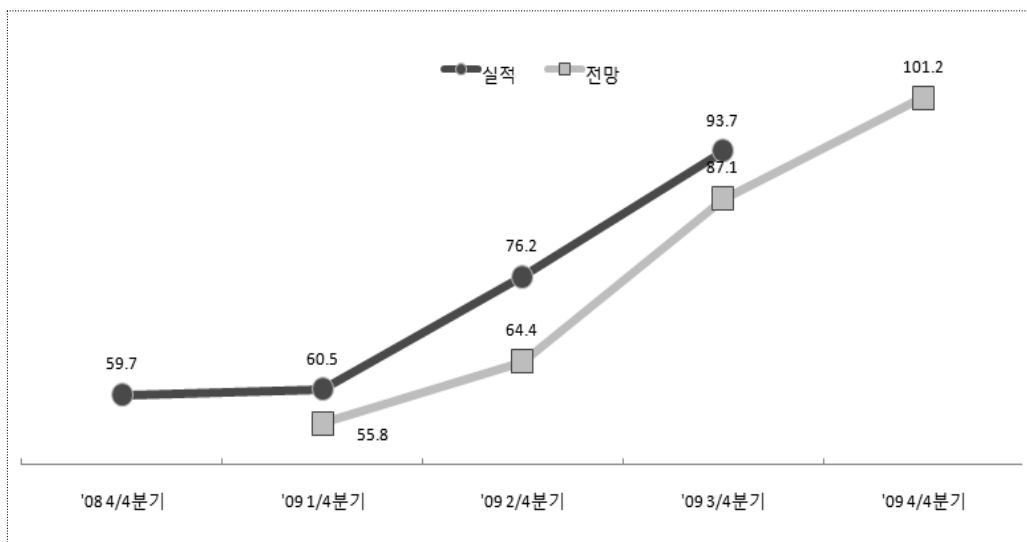


[그림 10] 부분별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Ⅲ. 서울의 3/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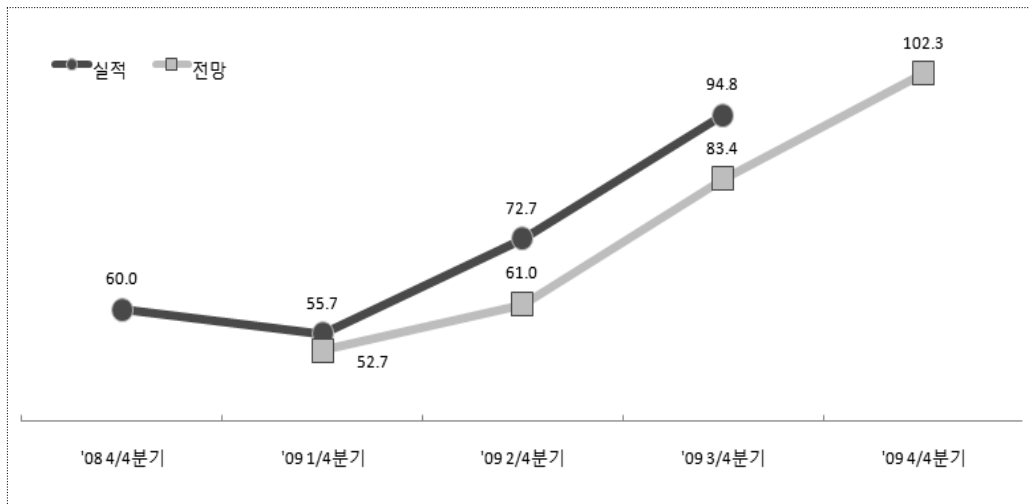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 1/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큰 폭으로 개선

- 2009년 3/4분기 기업의 업황 실적 및 전망은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고 있어 시차를 두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가시화
 - 3/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기업경영실적 호전, 불확실성 축소,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어 93.7을 기록
 - 이는 2/4분기에 비해 17.5p 증가한 것으로 1/4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상승되고 있음을 반영
 - 4/4분기 업황 전망은 101.2로 3/4분기보다 14.1p 상승한 것으로 기준치(100)를 넘어 가시적인 경기 회복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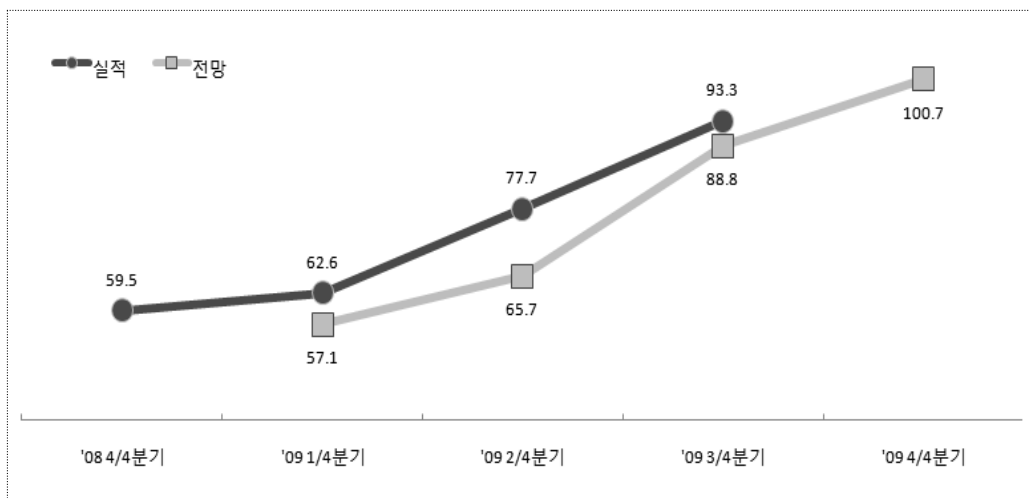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의 업황지수

- 2009년 3/4분기 서울의 제조업 경영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제조업의 업황 실적지수는 2009년 3/4분기 94.8로 비제조업의 93.3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2/4분기보다 22.1p 상승한 것으로 이전 증가분 17.0p보다 훨씬 커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
 - 4/4분기 업황 전망은 전분기 대비 18.9p 상승, 102.3으로 기준치(100)를 넘어 제조업 경기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



[그림 12] 서울의 제조업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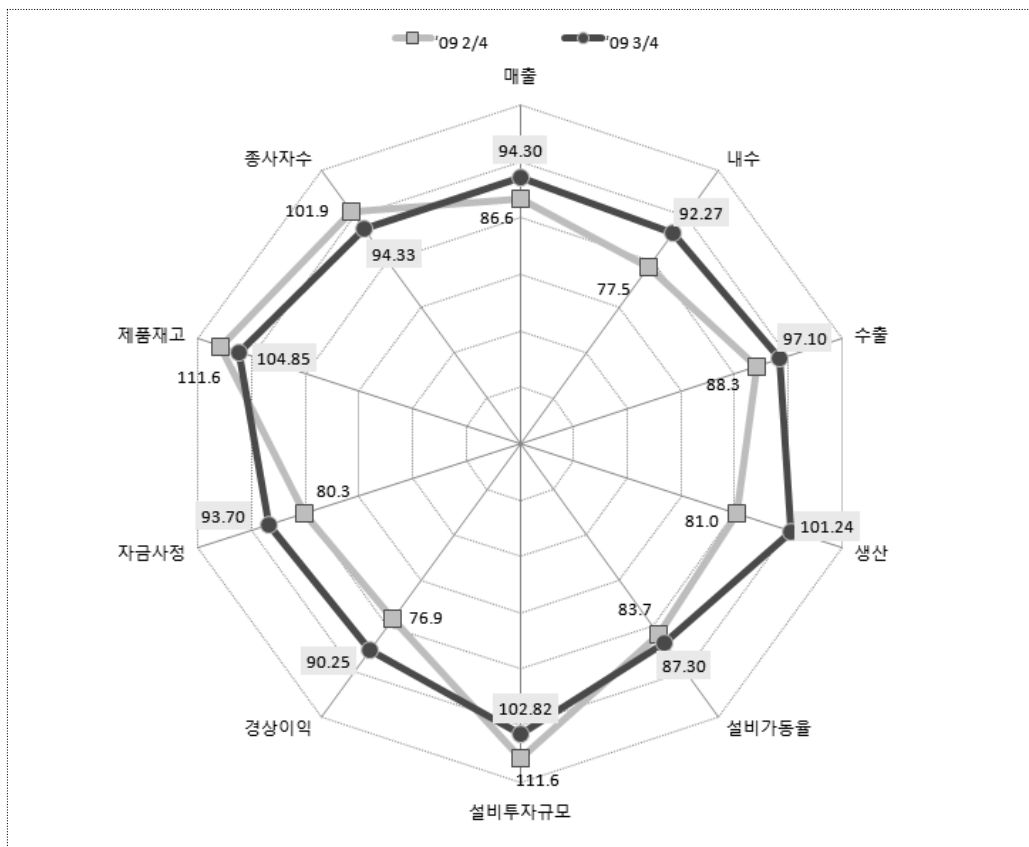
- 서울 비제조업의 3/4분기 업황 실적지수는 93.3이고, 4/4분기 업황 전망지수는 100.7로 지속적 상승 추세
 - 서울의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실적과 전망 각각 2/4분기보다 15.6p, 11.9p 높게 나타났으나 제조업의 증가분보다는 낮은 수준



[그림 13] 서울의 비제조업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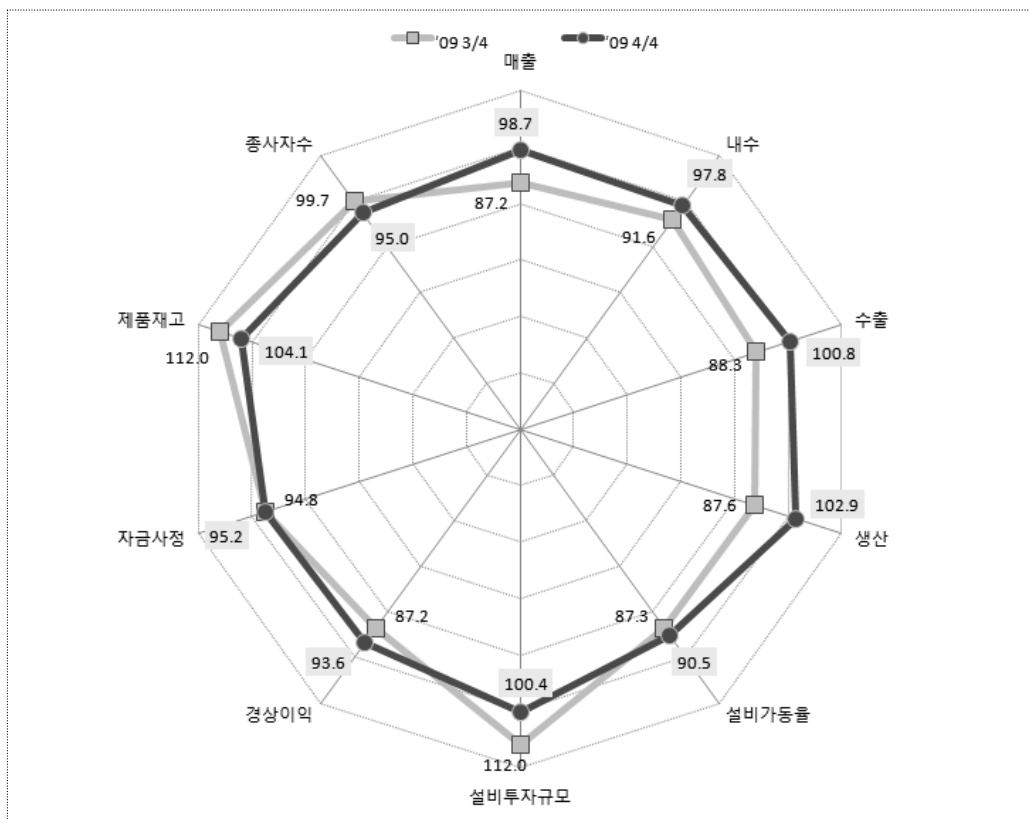
- 3/4분기 각 부문별 실적지수는 대부분 2/4분기에 비해 개선
 - 생산부문의 실적지수는 101.2로 2/4분기 대비 20.2p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설비가동률과 매출 또한 각각 3.6p, 7.7p 증가
 - 내수부문의 실적지수는 2/4분기 대비 14.8p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 부문도 8.8p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업황실적지수 상승에 영향
 - 기업의 경상이익 지수는 90.2로 타 부문의 실적지수보다 작지만 2/4분기 대비 13.3p 증가

- 이는 수출 및 내수 부문의 상황이 호전되면서 경상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의미
- 설비투자 규모는 102.8로 2/4분기 대비 8.8p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를 상회
-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하여 기업이 설비투자를 줄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
- 종사자 수는 94.3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종사자 수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가 고용에 대한 기대 고조



[그림 14] 서울의 각 부문별 실적 지수

- 2009년 4/4분기 각 부문별 전망 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상승 예상
 - 수출부문, 생산부문 전망지수가 각각 100.8, 102.9로 기준치(100)를 넘어섰으며 이는 3/4분기 전망에 비해 12.5p, 15.3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향후 서울소재 기업의 수출 및 생산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
 - 또한 매출(98.7), 내수(97.8), 경상이익(93.6) 등의 전망지수도 100에 근접하여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제품 재고 전망지수는 104.1로 3/4분기 전망보다 7.9p 줄어들어 적정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종사자 수 전망지수는 3/4분기보다 4.7p 감소한 95.0을 나타내어 기준치(100)보다 낮아 적정 인원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



[그림 15] 서울의 각 부문별 전망 지수

IV. 종합분석 결과 및 시사점

서울의 경기는 1/4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국면에 있으며 3/4분기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확대로 플러스 성장 예상

- 서울의 산업생산은 2009년 1월 전년동월대비 -27.1%로 저점을 기록한 후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7월에는 -11.0%로 감소세가 크게 완화되는 등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특히, 2009년 7월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 증가율은 5.2%로 5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여 내수부문은 전국(4.8%)보다 빠른 회복세
 - 서울의 2/4분기 실업률은 4.7%로 1/4분기 4.9%보다 하락하여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공공부문의 인턴십 등 확대 재정정책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인
 - 또한 청년층 실업률은 2009년 2/4분기 7.8%로 전국의 8.0%보다 낮아 2007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국 대비 낮은 수준

서울의 소비자 및 기업의 체감경기는 3분기 연속 상승 추세로 현재 경기가 크게 호전되고 있음을 시사,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확대

- 2009년 3/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100을 상회하여 서울 시민들의 체감경기가 크게 호전되고 있음을 시사
 -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가 2/4분기 95.6에서 3/4분기 6.3p 상승한 101.9를 기록하며 올 들어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넘어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

-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도 3/4분기 121.9를 기록하여 1년 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서울의 기업업황 실적 및 전망지수는 모두 2분기 연속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어 향후 시차를 두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가시화될 전망
- 2009년 3/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업황 실적지수는 2/4분기 76.2에서 93.7로 17.5p 증가하였으며, 다음 분기 업황 전망도 2/4분기 87.1에서 101.2로 크게 상승
- 실물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의 경영실적 호조,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증가, 소비심리개선 등으로 향후 실물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는 상반기(3월) 2조 3천억원에 이어 하반기(8월)에도 6,63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경기회복에 총력

- 서울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6,639억원의 추가경정 편성
- 안정적인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서울형 복지 강화(1,21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2,349억원), 완공예정사업 마무리 및 조기집행준비(743억원) 등의 사업 부문에 하반기 추경 6,639억원의 64.8%를 편성
- 상반기에는 부문별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활성화(1,677억원), 서울형 복지 내실화(1,168억원), 대규모 SOC 사업(13,452억원) 등에 모두 16,297억원으로 전체 추경 2조 3천억원의 69.5% 차지

-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서울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편성된 2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 필요
 - 향후 서울의 체감경기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청년실업 해소, 창업절차 간소화 및 자금 확충 등의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

부록 : 2009년 3/4분기 주요 조사 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08년 4/4분기	63.7	60.0	77.5	35.6	66.8	78.5	81.9
2009년 1/4분기	78.3	67.6	99.2	37.8	97.1	89.9	106.8
2009년 2/4분기	95.6	79.0	110.9	67.5	116.3	104.1	107.2
2009년 3/4분기	101.9	84.6	113.9	87.3	121.9	101.5	101.9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 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08년 4/4분기	70.6	78.6	76.2	55.1	134.2
2009년 1/4분기	71.1	81.5	77.0	68.9	147.7
2009년 2/4분기	82.8	86.9	91.7	93.9	147.5
2009년 3/4분기	89.3	88.0	96.8	102.1	145.4

<표 3> 서울지역 기업 경기 지수

구 분	실적				전망			
	'08 4/4분기	'09 1/4분기	'09 2/4분기	'09 3/4분기	'09 1/4분기	'09 2/4분기	'09 3/4분기	'09 4/4분기
매출	68.3	66.1	86.6	94.3	66.5	67.9	87.2	98.7
내수	63.1	66.9	77.5	92.3	60.2	71.4	91.6	97.8
수출	77.8	66.9	88.3	97.1	75.2	67.3	88.3	100.8
생산	73.1	68.6	81.0	101.2	65.9	68.3	87.6	102.9
설비가동률	74.7	70.0	83.7	87.3	74.1	72.9	87.3	90.5
설비투자규모	75.3	79.4	111.6	102.8	70.5	78.0	112.0	100.4
경상이익	58.5	66.9	76.9	90.2	55.5	67.3	87.2	93.6
자금사정	63.6	72.1	80.3	93.7	61.0	72.8	94.8	95.2
제품재고	118.4	114.2	111.6	104.9	117.2	108.2	112.0	104.1
종사자수	97.8	102.3	101.9	94.3	99.0	103.1	99.7	95.0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 (2009년 3/4분기 조사 시점은 2009년 8월말)